

##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직무와 역할

-성직자·평신도·봉헌 생활자-

신성근 신부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관이나 단체는 반드시 체계적인 조직이 있다. 그리고 그 조직의 고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방법과 질서 등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한 교회는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즉 “그리스도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께서 교회에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기신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 받은 자들이다.”<sup>1)</sup>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sup>2)</sup>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무가 있지만, 그 사명은 하나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분께 받았다. 또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sup>3)</sup> 한편 그리스도인 중에는 복음적 권고를 특별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며, 자신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sup>4)</sup>

### 1. 교계의 구성

#### 1) 교회내 직무의 존재 이유<sup>5)</sup>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 직무의 원천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권한과 사명을 주시며 그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셨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다.

이 교회의 직무는 그 본질이 성사적이므로 봉사의 특성이 있다. 실제로 사명과 권위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성직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유로이 “종의 모습”(필리 2,7)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sup>6)</sup> 성직자들이 봉사하는 말씀과 은총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그들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sup>7)</sup>

1) 교회법 제204조 1항, 교회 헌장, 31항 참조.

2) 교회법 제208조, 교회 헌장 32항 참조.

3) 평신도 교령, 2항 참조.

4) 교회법 제207조, 2항.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874-979항 참조.

6) 로마 1,1 :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직무는 그 본질이 성사적이므로 단체적 특성이 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봉사 직무를 시작하시면서 거룩한 교계의 기원인 열두 사도를 세우셨다. 열두 사도는 형제적 일치를 통하여 모든 신자의 형제적 친교에 이바지할 것이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를 반영하고 증언한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주교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단 안에서 그의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사제들도 그들의 주교의 지도로 교구 사제단 안에서 그들의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끝으로 교회 직무는 그 본질이 성사적이므로 개별적 특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제들은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또한 언제나 개별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제자들은 “너는 나를 따라라.”(요한 21,22)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사제들은 이는 공동의 사명 안에서 개별적인 증인이 된다. 그리하여 각자는 사명을 주시는 분 앞에서 각자 책임을 지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이처럼 교회 내의 봉사의 직무는 개별적인 특성과 단체적인 형태를 지닌다. 이는 주교단과 그 으뜸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사이의 유대, 개별 교회를 위한 주교의 사목적 책임과 보편 교회를 위한 주교단의 공동 관심 사이의 관계에서 확인된다.

## 2) 주교단과 그 으뜸인 교황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사도를 뽑아 한 집단의 형태를 세우시고, 그 중심에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직분과 더불어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곧 베드로는 '반석(磐石)'이라는 뜻으로, 이 반석을 기초 삼아 당신 교회를 세우셨다. 그를 당신의 온 양떼의 목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반석인 베드로에게 맺고 푸는 권력과 통치의 열쇠를 맡기셨다(마태 16,17-20 참조).

베드로에게 부여된 양들을 돌보는 직분은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직분이다. 그리고 이 직무는 베드로와 결합하여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어 있으며, 교황과 일치하여 있는 주교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교황은 로마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주교단은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여러 권한을 행사한다. 사도단의 후계자인 주교단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며, 또한 한 단장인 교황의 권위 아래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 양 떼의 단일성을 드러낸다.

개별 주교들은 자기 개별 교회 곧 교구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된다. 이들은 사제들과 부제들의 협조를 받아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하여 사목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각 주교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모

---

7) 1코린 9,19 :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든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보편 교회의 한 부분인 자기 교구를 잘 다스림으로써 교회들의 몸인 신비체 전체의 선익에 이바지해야 한다.<sup>8)</sup>

### **(1) 가르치는 임무<sup>9)</sup>**

주교들의 첫째 임무는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신앙의 진정한 스승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전해 준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를 보존하도록, 주교들에게 가르침에 있어 그르칠 수 없도록 성령으로 보호하신다.

곧 교도권은 하느님의 백성이 빛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올바른 신앙을 오류 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교도권의 사목적 임무는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하느님의 백성이 머물도록 보살피는 임무이다. 이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교회에 약속된 이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공의회를 통하여 교도권을 행사할 때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 곧 교회가 교도권을 통하여 “믿어야 할 것”을 제시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그 결정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

아울러 하느님의 도우심은 사도들과 그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주교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데, 이들이 일반적인 교도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가르침을 제시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 그들을 따라야 한다.

### **(2) 거룩하게 하는 임무**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은 바로 주교와 사제들이다. 특히 교구장 주교들은 자신이 직접 봉헌하거나 자신의 협력자들인 사제들이 봉헌하는 성찬례으로써 최고 사제직의 은총의 관리자가 된다. 이는 성찬례가 개별 교회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주교와 사제들은 그들의 기도와 성무, 말씀 선포와 성사 집전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주교와 사제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됨으로써”(1베드 5,3)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 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sup>10)</sup>

### **(3) 다스리는 임무**

교회의 모든 권한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

---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0-886항 참조.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8-892항 참조.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3항 참조.

았다"(마태 28,18).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권한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세상에 파견하셨다.<sup>11)</sup>

그러므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곧 교구를 다스린다. 특히 조언과 권고와 모범으로 또한 권위와 거룩한 권한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와 권한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봉사 정신에 따라 건설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sup>12)</sup>

교구장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교구 안에서 행사하는 이 권한은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다. 비록 그 권한의 행사가 교회와 교우들의 선익을 위해 교황으로부터 일정한 한계에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유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즉 주교들을 교황의 대리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교황의 통상적이고도 직접적인 최고 권한은 주교들의 권한을 무효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고 보호한다. 주교들의 권한은 교황의 지도로 온 교회의 친교 안에서 행사되기 때문이다.<sup>13)</sup>

‘착한 목자’는 주교 사목직의 모범과 ‘전형’(典型)이다. 주교는 자신의 교구 안에서 교우들을 너그럽이 대해야 한다. 주교는 사람들 특히 아랫사람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그들의 말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sup>14)</sup> 아울러 교우들은 주교들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직무를 행사할 때 존경과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3) 주교들의 협력자

#### (1) 사제(신부)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역교회가 확장하기 시작하자, 주교들은 협력자들을 선발하여 안수하고 지역교회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오직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역교회 즉 본당 공동체를 돌본다. 이들이 주교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이다. 사제들은 주교에게 협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교우들을 사목한다. 위임받은 본당에서 고유한 사목을 하는 사제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구장 주교의 협력자들이다. 따라서 주교의 권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2) 부제

사도들은 자선활동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하기 위하여, 믿음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협조자를 선발하여 안수하였다(사도 6,1-7 참조).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제들의 성사 집전을 돕고, 복음 선포자로 활약하게 하였다(사도 8,26-40 참조). 부제는 사제직에 참여하지만, 그 범위는 주교와 사제를 보좌하는 데 있으며, 권한도 주교에게 속해 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위해 선발된

11) 마태 28,19-20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4항 참조.

13)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5항 참조.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6항 참조.

다. 전례에서 주교나 사제를 보좌하고, 세례성사를 집전하며, 혼인과 장례를 주관하고 준 성사를 집전한다. 전례 중 복음의 책임 낭독자이다.

## 2. 평신도<sup>15)</sup>

성직자나 성품의 수도자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 불린다. 곧 세례로 하느님 백성 곧 교회 구성원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 그리고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한다. 이들은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교회의 한 구성원을 이루는 평신도들은 자기의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된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교리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요구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의 실제적인 문제에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곧 공동체의 으뜸인 교황과 그와 일치해 있는 주교들의 인도를 받는 지상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언제나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평신도들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며, 이들의 활동과 협조 없이는 사목자들의 사도직은 대부분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1) 그리스도 사제직과 평신도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열매가 풍부하게 맺도록 부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까지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이 되어,<sup>16)</sup> 성찬례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스럽게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된다. 한편 평신도 부모들은 “부부 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주선함으로써”<sup>17)</sup> 특별한 모양으로 이

15) 가톨릭 교회 가르침, 897-913항 참조.

16) 1베드 2,5 :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17) 교회법 제835조 4항.

성화 임무에 참여한다.

한편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필요한 경우 고정적으로 독서직과 시종직을 맡을 수 있다. “성직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 일부를 보충하여 법 규정에 따라 말씀의 직무를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sup>18)</sup>

## 2) 그리스도의 예언자직과 평신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는 교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예언자직을 수행하신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복음화되어, 생활의 증거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포 함으로써 예언자적 사명 실현한다. 평신도들이 하는 “이러한 복음화 활동은 세속의 일반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점에서 어떤 특별한 징표와 독특한 효력을 얻는다.”<sup>19)</sup>

평신도들이 행하는 사도직은 생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 중에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교리 교육과 거룩한 학문, 교육 사회 홍보 매체에 협력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한다.

또한 교우들은 자신들의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할 권리와 이것을 그 밖의 다른 교우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sup>20)</sup>

## 3) 그리스도의 왕직과 평신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sup>21)</sup> 제자들에게 왕다운 자유의 선물을 주셨다. 이로써 제자들이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 자기 자신 안에서 죄의 나라를 완전히 쳐 이기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평신도들 또한 힘을 합쳐 사람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제도들과 조건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정의의 규범에 부합하고 또 덕을 실천하며, 인간 활동과 문화에 도덕 가치가 스며들도록 힘써야 한다.<sup>22)</sup>

한편으로 평신도들은 사목자들의 협력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소명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과 특은에 따라 공동체의 활동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임무가 주어졌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우들은 교회와 결합하여 자기의 본분이 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간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자기에 맡겨진 권리와 의무를 구별하도록 열심히 배워야 한

18) 교회법 제230조 3항

19) 교회 헌장, 35항.

20) 교회법 제212조 3항.

21) 필리 2,8=9 :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22) 교회 헌장, 36항 참조.

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롭게 결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세의 어떠한 일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떠한 인간 행위든 현세의 일에서도 하느님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평신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에페 4,7)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써 바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살아 있는 도구이며 증인이다.

### 3. 봉헌 생활

#### 1) 복음적 권고와 봉헌 생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다양한 복음적 권고를 받고, 완전한 사랑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 사랑은 봉헌 생활의 소명을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생활의 정결, 청빈, 순명의 의무를 지운다. 교회가 인정하는 일정한 생활 신분에서, 바로 이 복음적 권고의 서원이 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의 특징이다. 이 봉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로 다짐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애덕의 완성을 추구함으로써 교회에서 미래 세계의 영광을 예고하고 보여준다.<sup>23)</sup>

#### 2) 은수隱修 생활

은수자들은 세 가지 복음적 권고[福音三德]를 언제나 공적으로 선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고독의 침묵과 줄기찬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하느님 찬미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이들이다. 은수자에게는 주님만이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자기네 삶을 바친다. 은수 생활이야말로 사막의 영적 싸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영광을 찾아야 하는 특별한 소명이다.<sup>24)</sup>

#### 3) 봉헌된 동정녀들

사도 시대부터 더욱 자유로운 마음과 몸과 정신으로 전적으로 주님과 일치하도록 부름을 받은 동정녀들은, “하늘 나라 때문에”(마태 19,12) 평생 동정이나 정결의 신분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초월적 표징이 되며, 하늘의 저 신부와 내세 생활의 종말적인 표상이 된다.

봉헌 생활의 다른 형식으로 사는 동정녀들의 회도 있는데, 이들은 세속에 사는 여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고유한 신분에 따라 기도와 속죄, 형제들에 대한 봉사와 사도직에 종사한다.<sup>25)</sup>

23) 가톨릭 교회 교리서, 915-916항 참조.

24) 가톨릭 교회 교리서, 920-921항 참조.

25) 가톨릭 교회 교리서, 922-924항 참조.

#### 4) 수도 생활

수도 생활은 그리스도교 초기에 동방에서 생겨났다. 수도 생활은 전례적 특성, 복음적 권고를 따르겠다는 공적 서원, 형제적인 공동생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일치 속에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수도 생활은 교회가 주님께 받은 선물이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생활로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에게 교회가 향구한 생활양식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 구세주의 신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도 생활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 시대의 언어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초대받는다.

모든 수도자는, 교구장 주교들의 사목 직무의 협조자들이다. 교회의 뿌리 내림과 선교적 성장에는, 복음 선포가 시작될 때부터 모든 형태의 수도 생활의 존재가 필요하였다.<sup>26)</sup>

#### 5) 재속회

재속회(在俗會)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생활회이다. 이 재속회 회원들은 세상 안에서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복음화 임무에 참여하는데, 이들의 존재는 세상의 누룩과 같다.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증거는 현세 사물을 하느님께 맞게 정돈하고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유대로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여 자기들끼리 그 고유한 재속 생활 방식에 알맞게 친교와 형제애를 지켜나간다.<sup>27)</sup>

#### 6) 사도 생활단

다양한 형태의 봉헌 생활 이외에 사도 생활단들도 있는데, 그 회원들은 “수도 서원 없이 그 단체에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고유한 생활 방식에 따라 형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회헌을 준수하며,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한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에는 그 회원들이 정해진 회헌에 따라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는 단체들도 있다.”<sup>28)</sup>

### 교회는 답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계제도를 '봉사하는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9)</sup>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당신을 본받아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sup>30)</sup> 그러면서도 그들의 합법적 권위를 인정해야 함도 가르치셨다. 심지어는

26) 가톨릭 교회 교리서, 925-927항 참조.

27) 가톨릭 교회 교리서, 928-929항 참조.

28) 교회법 제731조 1항.

29) 교회 헌장, 18항 참조.

30) 마태 20,28 :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sup>31)</sup> 특히 최후 만찬에서는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권위는 봉사하는 정신으로 행사해야 함을 분명히 하셨다.<sup>32)</sup>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봉사 직무에서 능동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교황 또는 주교가 교우들의 신앙을 수호하고 윤리 도덕 문제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봉사에 실패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다.<sup>33)</sup>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어떤 생활양식으로 살아가든지, 그 첫째가는 사명은 말씀을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다. 신앙인은 또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함의 길로 매진하여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성인(聖人)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

31) 마태 23,3 :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32) 요한 13,14 :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33) 2티모 4,1-5 :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